2부 영감 —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

성경론 10편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신앙고백서 1.2–3(1.1 끝·1.4·1.6 일부) · 프레임 22장 성경의 정경 · 워필드 부록 2 신약 정경의 형성 · 워필드 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7절(6절 일부) · 바빙크 5장 성경 [106]·[108]의 정경 언급 · 신앙고백서 1장 1.2-3

> ❓ **성경 목록은 몇백 년 뒤 교회 회의에서 투표로 정한 거야? 그럼 성당 성경에 책이 더 많은 건 뭐고, 도마복음은 왜 빠졌어?**

🧭 흐름 한눈에

신앙고백서는 66권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그 책들이 영감으로 주어졌기에 “믿음과 삶의 규칙”이라고 선언합니다.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으니 정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왜 하필 이 책들인가”를 역사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백성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구약은 언약궤 곁과 성전에, 신약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워필드는 역사로 이를 받칩니다. 교회는 구약과 '정경'이라는 생각을 물려받은 채 태어났고, 사도들이 규범으로 준 새 책을 처음부터 '성경'으로 하나씩 더했습니다. 오래 걸린 것은 투표 때문이 아니라 필사본이 느리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바빙크와 프레임은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교회는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이므로 정경은 이제 닫혔습니다.

📜 절별 정리

📜 1. 이름으로 못 박은 66권, 그런데 왜 어려워 보일까 (신앙고백서 1.2 · 프레임 22장)

고백서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쓰고, 구약 39권과 신약

주어졌고, 그래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지를 재는 잣대, 곧 '정경'이 됩니다.
프레임은 이 목록을 묻는 일이 왜 어려워 보이는지 솔직하게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약 목록을 두고 다투어 왔습니다. 둘째, 처음 4세기 동안 지역마다 신약 목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셋째, 베드로후서, 요한이서·삼서, 요한계시록처럼 지금은 이견 없는 책도 초기 일부 목록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도 프레임은 2세기의 이레니우스가 빌레몬서·베드로후서·요한삼서·유다서를 뺀 거의 모든 신약 책을 권위 있는 본문으로 인용했다고 짚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도마복음·유다복음은 교회가 옳게 정죄한 영지주의 계열이라고 봅니다.

1. 성경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 66권을 이름으로 적어 범위를 분명히 함
3. 영감으로 주어졌기에 믿음과 삶의 규칙
4. 정경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도 정직히 인정
5. 2세기 이레니우스의 목록이 이미 지금과 가까움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 곧 '영감으로 주어짐'의 근거(★ 신앙고백서·바빙크 공통)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에베소서 2:20**
>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짐, 곧 신약과 구약이 함께 교회의 기초(신앙고백서)
>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 **베드로후서 3:15-16**
>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신앙고백서·워필드·바빙크 공통 — 이 편의 기둥 구절)
>
>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6:29, 31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어야 함, 곧 기록된 말씀이 신앙의 규칙(신앙고백서)

누가복음 16: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16: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신앙고백서 1.2

📜 2.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신다 — 구약 (프레임 22장 · 바빙크 5장 [106])

프레임은 이 장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책이 아니라 조직신학이라고 밝힙니다. 자료를 모아 결론을 끌어내는 역사 연구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을 '확실하게' 가려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것이 정경 목록이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아 주는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높은 권위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의 죄까지 꾸짖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곁에 두셨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 여호수아의 말을 차례로 더하셨습니다. 바빙크도 구약 정경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봅니다. 율법이 성소에 보관되고, 잠언이 모이고, 후대 예언자가 앞선 예언서를 권위 있게 읽는 과정 속에서 정경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기록된 말씀이 입으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2. 최고 권위의 말씀은 사람 말과 구별돼야 한다
3. 그러니 정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돌판 → 모세 율법 → 여호수아로 차례로 더해짐
5. 구약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알고 인용함

신명기 31:24-29

율법을 기록해 언약궤 곁에 두고 후대의 죄를 증언하게 하심(프레임)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 24:25-28

여호수아의 말이 율법책에 더해진 다음 단계(프레임)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레미야 26:18

미가의 예언(미가 3:12)을 인용한 곳. 구약 저자가 앞 책을 알았다는 예(프레임)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36:2

하나님이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심(바빙크)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잠언 25:1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을 모음, 곧 정경이 모여 가는 과정(바빙크)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다니엘 9:2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권위 있게 읽음(바빙크)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 3. 외경은 왜 빠졌나 (신앙고백서 1.3 · 프레임 22장 · 바빙크 5장 [106]) ^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마카베오서, 토빗서, 집회서 같은 책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6)에서 이 가운데 여러 권을 정경으로 받았습니다. 고백서의 논리는 짧습니다. 정경의 기준은 영감인데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으니 정경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고백서는 외경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처럼 읽고 쓸 수는 있지만

본문을 권위 있게 인용할 수 있는지에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당시 유대인의 구약이 개신교 구약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바빙크는 외경을 함께 실은 그리스어 번역(70인역)조차 정경적인 책들의 권위를 증언한다고 덧붙입니다.

1. 정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
2.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다 → 정경 아님
3. 사람의 좋은 글로는 읽을 수 있다
4. 예수님과 유대인은 권위 본문에 동의했다
5. 그 구약 = 개신교 구약(프레임의 판단)

> **로마서 3:2**
>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 곧 구약의 범위를 이스라엘이 받아 지킴(★ 신앙고백서·바빙크 공통)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누가복음 24:44**
>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예수님이 부르신 구약 전체(★ 신앙고백서·워필드 공통)
>
>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 **마태복음 23:35**
>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흔히 히브리 성경의 처음과 끝을 가리킨다고 읽힘(신앙고백서)
>
>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베드로후서 1:21**
>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 곧 영감이 기준(★ 신앙고백서·워필드·바빙크 공통)

>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흔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 신앙고백서 1.3

📜 4. 교회는 성경을 가진 채 태어났다 — 사도가 준 책을 구약 곁에 (워필드 부록 2 · 9장 7절 · 프레임 22장)

워필드의 출발점은 교회가 '정경'이라는 생각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생각과 구약 전체를 유대교에게서 물려받았고, 성경 없이 지낸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구약 선지자보다 권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했고, 그 가르침을 편지에 담아 예배 때 읽고 교회끼리 돌려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경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자라는 목록이었습니다. 사도에게서 새 책을 받을 때마다 구약 곁에 '성경'으로 한 권씩 더했습니다. 신약 안에서 이미 그 증거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두고, 바울은 신명기와 누가복음을 한 묶음의 “성경”으로 인용합니다. 프레임도 같은 방향에서 말합니다. 옛 언약에 기록된 계시가 있었듯 새 언약에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전 대신 당신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1. 정경 개념과 구약은 유대교에서 물려받음
2. 사도의 권위는 구약 선지자보다 낮지 않다
3. 사도의 편지는 예배 때 읽히는 규범이었다
4. 새 책을 하나씩 구약 곁에 '성경'으로 더함
5.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 가운데 두셨다

> **고린도후서 3:6**
>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 곧 선지자 못지않은 권위(워필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13

내용뿐 아니라 말까지 성령이 가르치심(★ 워필드·바빙크 공통)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사도의 가르침이 편지(글)에 담겨 전해짐(★ 워필드·바빙크 공통)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골로새서 4:16

편지를 교회에서 읽고 다른 교회와 돌려 읽으라(★ 워필드·바빙크 공통)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들'과 같은 반열에 둠(★ 신앙고백서·워필드·바빙크 공통)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5:18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워필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16-17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명기 30:11-14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프레임)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지닌 상태로 존재했다.” — 워필드

📜 5. 투표가 아니라 전달 — 언제 완성되고 왜 오래 걸렸나 (워필드 부록 2 · 9장 6절 · 프레임 22장 · 바빙크 5장 [108])

워필드는 2세기 교부들도 신구약을 똑같이 '성경'으로 인용했다고 보여 줍니다. 폴리캅은 시편과 에베소서를 한 성경으로 다루고, 클레멘트 2서는 이사야를 인용한 뒤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신약이 '점점 높아진' 증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이 워필드의 판단입니다. 그는 네 질문을 나누자고 합니다. 정경은 언제 완성되었나, 각 교회는 언제 받았나, 언제 온 교회에 퍼졌나, 무엇을 근거로 받았나.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도가 마지막 책을 주었을 때 정경은 완성되었지만, 손으로 베낀 사본으로만 퍼졌기에 지역마다 가진 책이 달랐습니다(서방은 히브리서를, 시리아는 일부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오래 망설였습니다). 의문은 늘 교회 일부에 그쳤고, 교회 전체가 끝내 거부한 책은

정경으로는 거의 다투지 않았고, 367년 아타나시우스가 목록을 냈을 때도 잡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빙크는 4세기 후반 공의회들이 이견 있던 책들을 포함해 정경을 마무리했지만, 그것은 오래 이어진 관행을 승인한 것이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1. 2세기 교부들도 신약을 '성경'으로 인용
2. 정경 완성과 보편 수용은 다른 질문
3. 오래 걸린 이유: 필사본의 느린 확산
4. 교회 전체가 끝내 거부한 책은 없다
5. 공의회는 만든 게 아니라 승인했다

> **에베소서 4:26**
> 폴리캅이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인용한 신약 구절(워필드)
>
>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 **시편 4:4**
> 에베소서 4:26이 인용한 구약 구절, 곧 폴리캅에게 두 책이 한 성경(워필드)
>
>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 **마태복음 9:13**
> 클레멘트 2서가 “또 다른 성경”으로 인용한 말씀(워필드 쪽 정리자 보충, 마가복음 2:17에도 있음)
>
>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베드로후서 3:16**
> 이름이 붙기 전에 이미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워필드)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6. 기준은 있었지만 확신은 위에서 —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다 (프레임 22장 · 워필드 부록 2 · 바빙크 5장 [108])

교회가 그토록 일치하게 된 이유를 프레임은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본문을 비추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의 신적 성격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프레임은 교회가 객관적 기준도 썼다고 인정합니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사도성이고, 마가·누가·히브리서·야고보·유다처럼 사도가 아닌 저자의 책도 사도 곁에서 사도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역사 증거만으로는 '그럴 법하다'는 수준에 그치고, 오래됨이나 예배 사용이나 정통성도 그 자체로 증명은 못 합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의심한 예처럼, 교리 기준도 다른 기준과 함께, 개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공동의 분별 속에서 써야 합니다. 워필드는 기준을 더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핵심은 '사도가 썼나'가 아니라 '사도가 교회에 규범으로 주었나'였고, 신약에서 처음 “성경”이라 불린 책이 사도가 아닌 누가의 복음서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빙크는 기준을 하나로 딱 짚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합니다. 이 책들은 그 자체를 근거로 즉시 받아들여졌고, 저자들에게 쓰게 하시고 교회에게 받게 하신 분은 같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1. 교회의 일치 =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들음
2. 가장 분명한 객관적 기준은 사도성
3. 역사 증거만으로는 '개연성'에 그친다
4. 워필드: '사도가 썼나'보다 '사도가 주었나'
5. 바빙크: 쓰게 하신 성령이 받게도 하셨다

> **요한복음 10:27**
>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곧 교회가 정경을 알아본 방식(프레임)
>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 선지자를 가리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나 적용은 어렵다는 예(프레임)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4:14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로 소개, 곧 사도의 동료(프레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곧 누가의 동행(프레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복음 10:7

디모데전서 5:18이 “성경”으로 인용한 누가의 본문, 곧 비사도 저자의 책도 성경(워필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복음 1:1

예수에 관해 쓴 사람이 많았다, 곧 '유일한 기록'이어서 뽑힌 게 아님(바빙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6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곧 야고보와 바울이 맞닿는 지점(프레임 각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의 양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 프레임 /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문서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의 저작일 필요는 없었다" — 워필드

📜 7. 교회가 정경을 만드는가, 정경이 교회를 세우는가 (프레임 22장 · 신앙고백서 1.4 · 바빙크 5장 [108] · 워필드 부록 2)

로마가톨릭은 정경의 권위가 교회(교황·공의회)의 공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프레임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정경에 대한 교회의 일치된 확신은 교황이나 공의회의 성명보다 앞섭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하시므로, 권위의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고백서 1.4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빙크는 바울의 태도를 예로 듭니다. 바울은 교회의 판단에 호소할 때도 승인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으려 했고, 오히려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가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워필드는 책들이 천천히 퍼진 흔적을 교회가 자기 권위로 정경을 정하느라 오래 걸린 증거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증언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함께 이 책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결론짓습니다.

1. 교회의 공표가 정경 권위를 만들지 않는다
2. 교회의 일치가 교황·공의회 성명보다 앞섬
3. 권위는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림
4. 바울도 교회의 승인에 기대지 않았다
5. 교회는 주인이 아니라 알아보고 받드는 자리

> **요한일서 5:9**
>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큼(신앙고백서 1.4)
>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신앙고백서·바빙크 공통)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가 신령한 사람의 시험(★ 워필드·바빙크 공통)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전서 10:15

교회의 판단에 호소하지만 승인이 아니라 동의를 구함(바빙크)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에베소서 2:20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곧 교회 결정보다 앞선 기초(신앙고백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정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정경의 권위에 의존한다." — 프레임

📜 8. 왜 67권은 없나 — 정경은 닫혔다 (프레임 22장 · 신앙고백서 1.1, 1.6 · 워필드 부록 2 · 바빙크 5장 [108])

프레임은 정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늘 닫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필요할 때마다 계시를 더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신명기를, 모세에 여호수아를, 율법에 선지서와 성문서를, 구약에 신약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수령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이니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도 최종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도 하나님도 책을 더하지 않는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정경은 닫혔습니다. 워필드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성령에 이끌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성경은 자랄 수 있었고, 사도가 마지막 책을 주었을 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 밖으로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고백서는 이전의 계시 방식이 그쳤으며 새 계시도 사람의 전통도 성경에 더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의 말대로 하나님은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1. 사람은 처음부터 더하거나 빼면 안 됐다
2. 하나님 자신은 단계마다 계시를 더하셨다
3. 그리스도 사역의 최종성 = 말씀의 최종성
4. 이제 하나님도 책을 더하지 않으신다
5.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 **신명기 4:2**
>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프레임·바빙크 공통)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요한계시록 22:18-19**
> 성경 마지막의 가감 금지 경고(★ 프레임·바빙크 공통)
>
>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마태복음 15:6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프레임, 고백서 1.6은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7:7-8, 13으로 듦)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히브리서 1:1-2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신앙고백서·프레임 공통)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3

들은 자들이 이미 확증했다, 곧 사도 세대의 증언으로 완결(프레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베드로후서 1:21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는 동안 성경이 자랄 수 있었다(워필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복음 16:13-14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 곧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심(바빙크)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저주, 곧 새 계시를 더하는 것 금지(신앙고백서 1.6)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신앙고백서 1.1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믿음과 삶의 규칙이고, 외경은 영감되지 않아 권위가 없다.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1.4).	목록을 이름으로 못 박음, 정경의 기준 = 영감	그 목록을 교회가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신약이 역사 속에서 모인 과정 — 프레임·워필드가 메운다
프레임	하나님은 말씀을 백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셨고, 교회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듯 그 책들을 알아보았다. 교회 권위가 정경에 기댄다.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 역사 증거의 한계(개연성),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 확신, 닫힌 정경	2세기 교부들의 구체적 인용 증거 — 워필드가 메운다
워필드	교회는 정경 개념과 구약을 물려받았고, 사도가 규범으로 준 책을 처음부터	신약 안과 교부 문헌의 역사 증거, '사도가 썼나'가	신자 한 사람이 그 목록을 확신하게 되는 길(성령의 내적 증거),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때문이지 투표 때문이 아니다.		
바빙크	교회는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을 승인하고 받아들였다. 쓰게 하신 성령이 받게도 하셨다.	정경이 쓰이고 읽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였다는 점, 기준을 하나로 좁힐 수 없다는 점	5장은 영감 중심이라 정경은 짧게 다룸, 외경 논의도 70인역 언급 정도 — 신앙고백서·프레임이 메운다
오웬	이 편의 재료에 없음 (오웬이 정경 목록을 따로 다루는지 확인 필요) — 프레임과 워필드가 메운다	—	오웬의 자증론은 뒤의 자증성·성령의 내적 증거 편에서 다룬다

고백서는 결론을 선언하고, 나머지 책들은 그 선언의 이유를 각자 다른 길로 댑니다. 워필드는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나”를 역사로 보여 주고, 프레임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나”를 성경의 원칙과 성령의 일로 답합니다. 둘 사이에는 긴장도 있습니다. 워필드는 교회가 사도적 기원에 대한 역사 전승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프레임은 역사 증거만으로는 개연성에 그친다고 선을 긋습니다. 바빙크가 이 둘을 잇습니다. 책들이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진 과정과, 그 받아들임을 일으킨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목소리 모두 한곳에서 만납니다. 교회는 정경을 만든 주인이 아니라 알아보고 받든 종이라는 것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정경
하나님이 믿음과 삶의 규칙으로 주신 책들의 목록, 곧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며, 원래 '곧은 자, 잣대'라는 뜻이다.

자증성
성경이 자기보다 높은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 더할 것이 없다는 성질.

외경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로마 교회는 성경에 넣지만 개신교는 넣지 않는 책들(마카베오서, 토빗서, 집회서 등).

사도성
사도가 썼거나 사도 곁에서 사도의 보증을 받은 책이라는 기준.

사도적 부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임으로 어떤 책을 교회가 지킬 규범으로 맡긴 일로, 워필드가 정경의 참된 기준으로 보는 것.

조명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 이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일(새 계시와 다르다).

영지주의
비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물질세계를 낮게 본 고대 이단 사상으로, 도마복음·유다복음이 이 계열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66권은 교회가 투표로 고른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교회가 알아보고 받은 목록이다.
- 교회는 구약을 가진 채 태어났고, 사도가 규범으로 준 새 책을 처음부터 '성경'으로 더했다. 오래 걸린 것은 필사본 때문이다.
-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으므로 정경이 아니다. 기준은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다.
- 정경의 권위가 교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정경에 기댄다.
-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이므로 정경은 닫혔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성경의 정경
- 워필드 · 제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 워필드 · 부록 2 신약 정경의 형성
- 바빙크 · 5장 성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